

寓話와 사례 중심의 경제학입문서

그레이브스 엮음 「隨筆로 엮은 經濟學」

李奉浩

매일경제신문 기자

1990년 3월17일 토요일 상오 9시50분경 사람들의 눈과 귀는 TV화면에 집중됐다. 6공화국 들어 처음 있는 대규모 改閣내용이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5개 정부부처 장관의 경질.

한마디로 대폭적인 改閣이었다. 그러나 이날 改閣발표는 15명이라는 많은 수의 장관이 바뀌었다는 것보다는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필두로 한 경제팀이 — 언제부터인가 우리 매스컴에서는 경제관련 정부부처 장관 등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 — 어떤 면면으로 짜여졌나에 관심이 집중됐던 것이다.

특히 경제팀의 팀장이 누구로 낙점되었는가에 시선이 집중됐고 앞으로 어떤 색깔의 경제정책이 펼쳐지게 될까에 더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왜냐하면 세계각국이 경제성장의 성공적 모델로 인정할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온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최근 급격히 악화되어 경제난국 심지어는 경제위기 — 자칫하면 남미의 여러나라처럼 다시 살기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는 — 라는 심각한 진단까지 내려져 무엇인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제팀장은 풍랑을 만난 우리 국민과 나라살림이라는 배의 진로를 좌우하는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수출부진·물가폭등·부동산투기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 경제의 '위기적 상황'은 정부와 관련업계에서 대폭적인 개각이라는 수술을 단행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지만 경제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부족한 일반국민들에겐 왜 그 모양 그꼴이 됐는지, 왜 더 빨리 대처를 하지 못했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도대체 경제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야단들인가 해서 관련책자를 펼쳐보려는, 그나마 호기심을 갖고 있는 일반독자들에게 경제관련도서는 그러나 좀처럼 이해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쓰여진 경제학원론조차도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 등으로 武裝하고 있어 모처럼 일었던 일반독자들의 호기심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

그러나 經濟관련 기사가 일반국민들을 독자로 삼고있는 일간종합지의 1면 머리를 시커멓게 장식하는 빈도수가 많아진 요즘 經濟가

미국 경제교육재단이 발행하는 월간지

「자유인」에 실렸던 글 81편을

발췌한 이 책은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를

다루면서도 단 한개의 수식이나

도표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대신

우화나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경제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설명해준다.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를 쉽고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풀이해주는 책은 없을까. 이 문제는 최근 우리 출판계에 의식있는 출판인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 경제를 이해하고 내일의 모습을 나름대로 전망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을 독자들은 목말라하고 있다.

현재 외국어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朴炳鎬교수가 編譯해 낸 「隨筆로 엮은 經濟學」은 이러한 독자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있어 관심을 끈다.

「자유 시장 경제학 ; 입문서」(Free Market Economics ; A Basic Reader, 1975, FEE)라는 원제를 갖고 있는 이 책은 미국 경제교육재단이 발행하는 월간지 「자유인」에 실렸던 글 81편을 발췌한 것이다.

모두 16개장으로 편역된 이 책은 경제학의 정의를 시작으로 생산, 市場, 소비, 화폐, 物價, 실업, 企業, 노동, 임금, 무역 등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를 빠짐없이 다뤘다.

그러나 이 책은 다른 경제학 도서와는 달리 단순한 數式이나 단한개의 그래프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대신 寓話나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경제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설명해주고 있다.

몇가지 예를 살펴보면 링컨대통령이 39살때 일리노이주 하원의원을 하고 있을 무렵, 천국에 있는 자신의 자리를 70~80달러만 주면 팔고싶다고 편지한 이복동생에 보낸 답장을 통해 私的財産과 교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최근 우리나라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나 경제활동에 문제가 크다는 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돈 — 경제학적 용어로 화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시사하는 다음과 같은 寓話도 흥미롭다.

한 사내는 꿈속에서 1백만달러를 손에 넣게 됐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더이상 일할 필요가 없게 됐고 출근도 하지 않아도 되고 잔소리쟁이 부장도 안보게 되어 기뻐한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을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별장 스포츠카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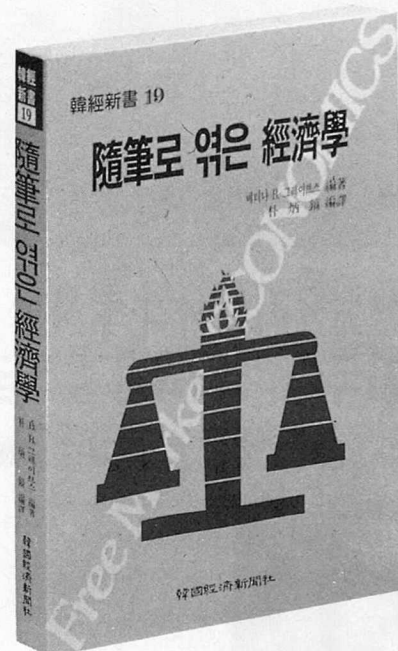
이러한 공상을 즐기고 있던 그는 배가 고파져서 아침을 먹으려 했으나 며칠전부터 주문했던 음식이 배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집 밖으로 나왔다.

놀랍게도 거리는 황폐화되어 있었고 전화도 불통이며 버스나 택시도 없었다. 얼마를 걸어가자 거리에 사람들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곧 수백명으로 불어났다. 그들은 음식을 어디 가면 살 수 있냐고 물었다. 사내는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사태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알아차리게 됐다. 그것은 사람들 모두가 1백만달러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들 모두가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의 寓話 — 수컷 딱정벌레와 암컷 지네가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됐다. 수컷 딱정벌레는 오른쪽과 왼쪽을 합쳐 모두 1백개가 넘는 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유자재로 몸을 놀리는 지네를 부러워했다. 수컷 딱정벌레의 칭찬에 우쭐해진 암컷 지네는 그러한 몸놀림이 아무 일도 아니라고 대답하고 오른쪽 16번째 다리를 움직여보라는 수컷 딱정벌레의 간곡한 요청에 몸을 움직였으나 온갖 몸놀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16번째 다리는 움직일 수가 없었고 왼쪽 11번째 다리만을 조금 떨었을 뿐이다.

한시간 가까이 노력을 했으나 암컷 지네는 오히려 지쳐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버렸다. 이 寓話는 경제활동의 터전인 자유시장이 갖고 있는 복잡한 메커니즘 — 1백개가 넘는 지네 다리도 비유된 — 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를 재미있게 보여준다.

이 寓話는 최근 전세값 폭등을 초래한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해준다.



이러한 寓話나 사례 말고도 「수필로 엮은 經濟學」은 부담없이 읽을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수필체의 문장으로 쉽게 읽혀지는 이 책은 그러나 경제학의 광범위한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배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려가면 어느새 자유시장경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한나라의 經濟가 기업이나 정당 등 특정집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제대로 발전되기 위해선 온국민의 경제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국제적인 연관성을 갖고 움직이는 경제라는 '괴물'의 실체를 벗겨주는 책이 많이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隨筆로 엮은 經濟學」은 번역서임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의미를 지닌 책이다.

이책을 바탕으로 우리경제 실상을 알기쉽게 일반독자에게 드러내 주는 책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필자만의 생각일까?